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8.28)

1. 한국의 지소미아(GISOMIA) 종료 결정 관련

□ [미국 정부 동향]

- (국무부 고위 당국자)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해로운(damaging) 의견대립이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기를 희망하지만, 최근 한국의 군사훈련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¹⁾
- o 아베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분쟁에서 ‘도움이 되지 않는 (unhelpful)’ 선택을 했다고 평가
- o 이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수 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으며, 미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다고 주장
- o ‘양국간 분쟁은 정보공유 협정이 지속될 가능성을 상당히 훼손(pretty much damaged)시켰다’ 고 밝히며 ‘그러나 완전히 손실(lost)된 것은 아니며 희망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’ 는 입장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8.29)

1. 한국의 지소미아(GSOMIA) 종료 결정 관련

□ [미국 정부 동향]

- (국방부) 마크 에스퍼(Mark Esper) 국방장관은 ‘(한일)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’ 며 한국과 일본에 현재의 갈등을 뛰어넘기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힘.²⁾
- o 8월초 자신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한 바 있으며, 양측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음을 강조

1) 「U.S. hopes South Korea and Japan can rebuild ties from 'rock bottom」 『Reuters』 (2019. 8. 27).

2) 「WATCH LIVE: Defense Secretary Esper, Joint Chiefs Chairman Dunford hold news conference at Pentagon」 『PBS』 (2019. 8. 28).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ugz-3D24FhI>

- ‘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 등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이 있으며,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’ 고 주장
- (국방부) 랜디 슈라이버(Randy Schriver) 국방부 아시아-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한국의 정보공유협정 폐기 결정을 비판하며, 미국의 두 동맹국의 정치적 다툼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경고³⁾
- ‘미국은 이번 결정(한국의 지소미아 종료)이 일본과의 관계 뿐 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 다른 우방국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해 왔다’ 며 ‘일본과 한국간 불화의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임을 강조하고 싶다’ 고 언급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8.30)

1. 한국의 지소미아(GSOMIA) 종료 결정 관련

□ [미국 정부 동향]

- (국방부)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‘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점에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어떠한 알림(forewarned)도 없었다’ 고 주장⁴⁾
- ‘빠른 시일내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, 한일 양측이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의미있는 대화(meaningful dialogue)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’ 고 촉구.⁵⁾
- ‘의미있는 대화는 불만을 재확산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해결 방식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’ 고 밝힘.

3) 「US expresses alarm over South Korea rift with Japan」 『Financial Times』 (2019. 8. 28).

4) 「Scrapped intelligence pact draws United States into deepening South Korea-Japan dispute」 『Reuters』 (2019. 8. 29).

5) 「Disputes Between U.S. Allies Hinder Indo-Pacific Security Cooperation」 『US Department of Defence』 (2019. 8. 28).
<https://www.defense.gov/explore/story/Article/1946959/disputes-between-us-allies-hinder-indo-pacific-security-cooperation/>